국내 와인 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하던 지난 2005년. 제 1회 KWC가 개최되었 다. 이는 국내 최고의 소믈리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공정한 심사 기준을 내세운 국내 최초의 와인 전문 품평회였다. 몇몇 비슷한 형태의 이벤트들이 나 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지난 15년 동안, KWC는 흔들리지 않고 내실을 다져왔다.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와인 컴피티션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.

KWC 심사 결과에는 매년 와인 업계 의 이목이 집중된다. 수상 와인들은 와 인리뷰를 포함하여 여러 매체와 SNS 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된다. 또 심사 위원들의 입소문을 타고 업계 곳곳으 로 빠르게 퍼진다. KWC 수상 후 실제 주문량이 늘어 와인이 조기에 품절되 는 경우도 있다. 지난 15년간 KWC가 수입사들의 꾸준한 참가를 이끌어 내 며 파이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미 파 급력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.

코리아와인챌린지(이하 KWC)가 오는 6월 제 16회 대회를 앞두고 있다. 그 간 KWC에는 해외 와이너리뿐만 아 니라 국내 수입사에서도 꾸준히 와인 을 출품해왔다. 수입사의 관점에서 KWC 참가의 이점을 따져볼 수 있도 록 KWC의 강점과 특화된 서비스를 현실감 있게 짚어본다. 글 신윤정

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〈Wine Review〉는 국내 유일의 와인 전문지이다.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, 와인바, 와인샵, 레스토랑 등 업계 구석구 석까지 배포된다. KWC 수상 와인들은 매달 와인리뷰의 다채로운 기획기사로 집중 조명되는데, 이로 인한 홍보 효과가 상당하다. 해당 기사들을 통해 와인 리뷰로 수상 와인 구매 문의가 와 수입사에 연결해 주기도 한다.



KWC에 출품된 와인은 국내 최고의 소믈리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평가된다. 여기에는 오랜 시간 국 내 와인 시장과 함께 성장해 온 국내 톱 소믈리에들과 국내외 각종 소믈리 에 대회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 은 소믈리에들이 포함된다. KWC가 와인 업계와 소비자들의 두터운 신뢰 를 받는 이유이다.

KWC 사무국은 수상 와인들의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는다. 이를 위해 국제 규 모의 전시회와 협업하기도 하고 단독 이 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. 수상 와인들 을 지방 와인 애호가들에게 알리기 위 한 전국 투어 시음회에도 적극적이다.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B2C 시 음 행사부터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 로 한 B2B 시음 행사까지, KWC 수상 와인 홍보이벤트의 스펙트럼은 폭넓다.

# **KWC 2020** 참가 신청 줄이어

KWC 2020의 참가 신청이 시작됐다. 공식 접수 기간은 예년 보다 한 달 가량 앞당긴 3월 2일부터로 정했다. 해외 와이너 리 중심으로 참가 신청이 활발히 들어오고 있는 현재. 3월 중순까지의 출품 현황을 훑어본다.

### 1. 1월, 참가 신청서 첫 접수

KWC 2020의 공식 접수 시작일을 한 달 이상 남겨놓은 지난 1월 23일, 호주의 한 와이너리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. 이는 작년 보다 일주일 이상 앞선 기록으로 지난 5년간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가장 이른 시기에 첫 접수가 들어온 것이다.

#### 2. 미수입 와이너리의 노크

현재까지 접수된 모든 와인은 와이너리에서 직접 참가 신청을 했다. 이 중 73%가 국내 미수입 와인들이다. 처음 참가하는 와이너리들도 있고 2~3회 째 참가하는 와이너리들도 있다. 한때 수입되었다가 거 래가 중단된 칠레의 한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처럼 KWC 2020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국 파트너를 찾으려는 와이너리도 있다.

### 3. 남반구의 약진

출품 종수로 따졌을 때 전체 출품 와인 중 77%가 신대륙 와인이다. 특히 칠레, 호주, 뉴질랜드 등 남반구 국가의 참여율이 확연히 높다. 물론 단정 짓기엔 이르다. 이탈리아, 프랑스, 스페인 등 구대륙 국가 의 참여율도 늘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 히 있다

## 4. 소규모 와이너리들의 출품

지난 3월 초부터 현재까지, 매일 2~3곳의 와이너리들이 참가 신청 서를 제출하고 있다. 매년 많은 와인을 출품하는 대규모 와인 그룹 도 있지만, 올해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소규모 농가형 와이너리들의 참가이다. 프랑스의 몽따뉴 생떼밀리옹부터 이탈리아의 아브루쪼 까지, KWC 참가가 처음인 소규모 와이너리들의 출현으로 올해 KWC가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. w.





발 델레 로제 아우렐리오 Val Delle Rose Aurelio

**AWARD** James Suckling-93 pts Gilbert and Gaillard-93 pts

